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1일(화)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의사일정 상정하고 하세요.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부처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요약 검토보고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금융당국 수장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이 라는 권대영 차관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라며 주식투자하는데, 요즘 안 그래도 영끌이다 뭐다 문제가 많은데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찬양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인지, 아니면 증권사 회사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장관들은 잘 모르겠는데 차관들이 왜 이리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이중적이고 경솔한 빚투 레버리지 발언에 대한 경위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국민을 대신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부위원장 나와서 공식 사과를 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지금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강민국 위원 나와서 공식 사과를 해야지.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이니깐 좀 이따가……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허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허영 위원 이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되기는 했지만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최원목 이사장이 지난 3년간 11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며 약 4억 3000만 원의 출장비를 지출했습니다. 전임자의 2배 수준인데요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화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등 과도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최 이사장의 국내외 출장 내역과 본인 동행인의 지출 증빙자료 또 이사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또 기금사업 중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사업의 세부 이행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저도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한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금융위원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계대출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많은 서민들이랑 청년들이 정책대출까지도 줄여 놓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곡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위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가지고, 여기 책임자가 나서서 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패닉 바잉이라고 해 가지고 다들 뭔가 코스피는 오르는 것 같고 나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빚내서 투자하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박탈감 같은 것을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허영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민국 간사님과 김재섭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권대영 부위원장의 발언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말씀하세요.

○강민국 위원 설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아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러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빚내서 투자하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조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정부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검토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총 110개 사업에 대하여 144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2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2025년도 말 누적 가입자 수가 270만 명 수준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35만 명을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에 483만 명을 신규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성장펀드 사업은 예산안 편성 후 펀드 조성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되는 기존 정책펀드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전의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종이 없는 것 하려고 해서 여기에 없어 가지고요. 정확하게 어느 파일에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알려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요약본 자료를……

○박상혁 위원 아니, 요약본이라는 게 여기…… 못 찾겠어요.

○이강일 위원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자료의 제목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총괄본은 배부해 드렸고요. 총괄본 자료에 보시면 소관별로 검토보고 제목하고 페이지 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종이 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일이 어느 건지, 뭐가 출력되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보고를 하시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이강일 위원 이것은 지금 컴퓨터 파일에는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렇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본 자료 우측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있고요. 그 페이지 수가 검토보고서 페이지입니다.

○이강일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으로 국민성장펀드 사업은 예산안 편성 후 펀드 조성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되는 기존 정책펀드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전의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1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하는 한편 이 사업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은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논의를 거치기 위하여 기후시민회의 운영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향후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도출될 공론 결과가 실제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5개 사업에서 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추진 시 가명처리 지원 업무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탁·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동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역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가명처리 등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 6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14개 사업에서 1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 사항인 상임위원의 증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이 급격하게 증원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중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보수집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해 감리용역을 실시하고 정보수집·제공 및 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16개 사업에서 18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 정립, R&D 제도 설계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연구기관의 자율성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는 일부 연구기관들이 연구회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연구기관은 연구회의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연구회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용인시 주민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43억 원에 달하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 8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총 37개 사업에서 5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 세부사업 중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법 시행시기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편성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충시설 관리 세부사업 중 LA 홍사단 옛 본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25년 편성된 공사비가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LH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26년 내 완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훈기금의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부처 간 자료 공유 등 효율적인 협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본 11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11개 사업에서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상담창구운영 세부사업 중 국민콜110운영 내역사업은 상담사 인력 부족 및 충원 지연으로 서비스 수준 및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적정 상담 인원을 적시에 확보하여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세부사업 중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대학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나 실제 운영 실적, 대학

과의 비용 부담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하실 분만 하세요.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왼쪽의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차례대로 한 분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권대영 부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이외에 내가 별도로 권 부위원장한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건설경기 부양 또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DSR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정부 때 당정 협의할 때도 그렇고 그때 권 부위원장의 답변 내용은 ‘가계부채 부실관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빚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는 도저히…… 권대영 부위원장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 바뀌고…… 금융위 부위원장 같으면 금융 관련된 총괄 실무책임자인데 갑자기 꼬리를 치고 싶었어요? 요즘 권 부위원장 완장 차고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해, 금융계에.

가계부채 부실관리가 우려된다는 사람한테 지금 빚투라는 이야기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뉴스 봤습니까, 빚투 발언 뒤에 주식시장에 돈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얼마나 더 풀리고 있는지?

지금 새로 오신 금융위원장이 여러 가지 금융계의 현안들을 파악해서 하기 전에 권대영 부위원장이 뭔가 중심을 잡고 방향타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정권의 딸랑이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왜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나? 가계부채 부실관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DRS 대출 규제 완화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와서 빚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예산안 이야기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하면서 앞으로 진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계에서 발언 한마디 잘못하면 투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려, 금융질서도 흔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를 견지하세요. 알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 답변하실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금 여러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리스크 감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전달되도록 각별히 제가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의나 리스크에 대한 그런 입장은 저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님도 그렇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문성도 키워야겠지 만 조직도 지금 접수된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또 시기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규모의 확장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건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많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공정위가 서울사무소밖에 없어서, 사실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많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어떤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사무소에 가서 접수하고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대민원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부족함이 느껴져서 경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저도 그 주장에 공감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경인사무소를 이제 개소할 것이고요.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 할 거고요. 규모도 충분히 갖추어서, 서울사무소가 지금 민원 처리를 거의 60%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공정위 직원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는 3~4건 정도인데 지금 7.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인원 보강이라든가 또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또 국제 무역과 관련된 분쟁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등등 여러 가지 좀 폭넓게 그리고 또 분야별로 심도 깊은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음에는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 계신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승원 위원** 지금 보면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보호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국가보훈부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도 좀 열악한 것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보훈재활체육센터, 지금 경기 남부권에 상이 국가유공자 12만 명을 위한 재활 전문 체육시설인 보훈재활체육센터가 단 한 곳 수원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규모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외에서 운동을 하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왔을 때 저도 충격이었고 아마 장관님께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하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외에서 운동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 보훈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사이클 전용 훈련장이 현재 지금 재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2010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꽤 노후되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용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8.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저희도 서면질의로 증액을 신청했구요. 그것에 관련해서도 국가보훈부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증축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개보위, 위원장님이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김승원 위원 그냥 목소리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감사에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구입 예산이 아직은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꼭 마련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종합적으로 또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김승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첫 번째 말씀하신 로봇 예산 적극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개인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에 대한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 기술분석센터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보훈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2급 국장인 보훈단체협력관에서 기획조정실장 같은 1급 보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관으로 승진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기조실장님보다 행시 두 기수 후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강민국 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아예 외부 인사면 모를까 부처 내부에서 승진한 인사가 이렇게 기수 파괴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강윤진 차관님은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보니까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이번 정부의 차관들이 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어요, 말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강윤진 차관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보훈부에서 이렇게 차관으로 승진했느냐……

차관님, 이번 정권에서 PK도 TK도 아닌 CK가 잡고 있다는 말 아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

○강민국 위원 강윤진 차관 배우자 최진복 씨가 건국대 법학과 출신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강민국 위원 보고 답변해요, 보고.

보니까 충남 보령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충남 동향인데, 배우자분께서 차관이 대전지방보훈청장 재직하던 시절에 17년 4월 20일 날 민주당 입당하셨지요? 몰라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잘 모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18년도 지선에서 보령시장 예비후보로도 출마하셨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경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민주당으로 보령시장 예비 출마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기수를 파괴시키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차관으로 앉힌 이유가.

왜 능력이 안 되는가 내가 말씀드릴까? 지난 10월 2일 날 서울 한 호텔에서 국제보훈 컨퍼런스 행사 종료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1연평해전 유공자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비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제1연평해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8명 중에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것 아니냐’고,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되냐’ 이런 발언 하셨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당시 표현이 부적절해서 사과드렸고 앞으로도 서해 수호 장병들이……

○강민국 위원 보훈부차관이라는 분이, 아까 금융위원회 차관도 마찬가지로 말을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됩니까? 보훈부만큼은 진보·보수 진영 논리라든지 이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 느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보훈은.

○강민국 위원 보훈은 숫자가 아니라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킨 장병들에게 그런 고통을 구걸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우해도 됩니까? 대답해

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앞으로 서해 수호 장병들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분이 기수 파괴로 해서 차관이 됐으면 능력이라도 있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일 잘하는 분 칭찬합니다.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발언도 막말하는 이런 사람이 차관 올라가는 데, 기수 파괴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특히 보훈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국가유공자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보훈부……

○**강민국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당장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얼마나 오래 하시겠어요? 내가 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내공도 없고 막말하지, 제1연평해전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들한테 구걸하듯이 ‘8명에서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유념할 게 아니고 스스로 차관 자리 물러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거기에 앉아 가지고 계속 우리 보훈 체계를 흔트리고 보훈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그래서 되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인이 왜 차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배경으로 됐다고 생각해? 본인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부에서 30년 이상 일했고 처음부터 현장과 대화를 하면서 단체 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참 뻔뻔하다. 뻔뻔해, 답변하는 거 보니까.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덕 위원** 보훈부차관님, 보훈은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민병덕 위원** 보훈은 똑같이 맞게가 아니라 흘러넘쳐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 이런저런 통합적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보훈에서는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월남 참전자의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억들을 저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유적지는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우리가 보안을 해서 관리를 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적절히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유철환 권익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고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민병덕 위원 그분이 남긴 유서에 ‘지난 20년간 자기 손으로 만든 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이야’, ‘가방 건 외에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는 양심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될 줄은 몰랐다’,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부정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유서에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민병덕 위원 이 고인의 유서 내용이 국민권익위의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종결 결정이 얼마나 비양심적이었고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원위에서……

○민병덕 위원 동의 안 하시네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토론 끝에 의결로 된 것입니다.

○민병덕 위원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 권익위가 유명무실하냐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서의 청렴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게요.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2023년 3월에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한 개를 준 것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 쪽지에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례적인 예의 차원에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방을 준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민병덕 위원 가방을 줬고요 거기에 종이가, 쪽지가 있습니다. 가방을 준 이유가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이유로 줬습니다. 그러면 당선을 도와줬는데 무엇을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조사하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예의라는 말이 아주 사람들 말에 회자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이번에 김기현 전 대표는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줬다’고 합니다. 사후 상납, 뇌물 아닙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예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 보고 계시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이 한마디도 못 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말씀드린 바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이거 신고 안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판단 못 하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들은 신고 사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지방의회 출장비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출장비, 여행사에서 항공료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부풀린 항공료를 가지고 의원들의 공동경비, 식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줬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통역비도 없을까? 왜 식비도 없을까? 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도록 그것도 권고를 행안부 쪽에 해 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요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보도 자료에는, 보도에는 잘못만 지적하고 있지 이것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조사.....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냥 하세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민병덕 위원** 조사한 것 중에 44%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면 44%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부패가 나오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 뭘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민병덕 위원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안 하신다고……

○신장식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한홍 하시려고?

○신장식 위원 예, 순서를 저는 맨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한창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어요.

○한창민 위원 국조실장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관련한 피해자들 6367명의 세입자가 실제로 1조 210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셨을 텐데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올 7월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 이야기하면서 2030 청년들이 실제적인 피해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대책위에서도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관련된 TF를, 범정부 TF를 꾸렸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30 그다음에 신혼 등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대책위 구성, 범정부 TF 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등등 해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것 꼭 관련해서 빠르게 준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 대책과 사후 구제 대책을 한꺼번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한창민 위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한창민 위원 제가 지난 국감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2027년 고갈이 예상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서금원에서 관련된 내용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한테도 그것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의 예산과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대책과 예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마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3년 정도만을 예상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

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불법사금융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방대출 사업이 계속 잘 진행돼야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의 지옥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대책 수립해 가지고 예산 검토까지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반적으로 서민금융 쪽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아주 소액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 제도 설계도 잘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 가야 되는데 재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좀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운진 보훈부차관님,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전수조사에 대해서 13억 5000만 원 증액안이 올라왔습니다. 1인 가구 전체 유공자 4만 9230명을 다 전수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때 문제 제기해서 그것이 반영됐는데 문제는 기존의 문열림센서하고 수발신 확인 웹 설치 사업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 확인하는 거지 예방 대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된 예산만 그냥 5억 2000만 원, 5억 5200만 원 편성해 봤습니다. 이 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냥 증액만 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종 전에, 최소한 72시간 전에는 같이 돌봐 가지고 마지막에 국가가 예우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 이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48시간 전이라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괜히 증액만 해 놓고 엉뚱한 데 돈 쓴다는 얘기 나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운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수조사는 올해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저도 AI를 직접 하면서 그 맥에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하루 만에 확인도 될 뿐 아니라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은 왜 그러냐 하면 국가유공자분들이 혼자 고독사하면 거기서 살고……

○**한창민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증액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해 주시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운진** 예, 구체적으로 의원실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마지막에 개보위원장님, 세 가지 사전예방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ISMS-P 인증 제도에 대해서만 예산이 11억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제도, 자율규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 안 나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같이 개선하지 않고 ISMS-P 인증 제도만 증액해 가지고 확대하면 사전예방 제도, 그러니까 이런 해킹 문제에 완전한 대책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 증액을 먼저 요청을 했고요. 특히 ISMS-P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라든가 예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책까지 세 가지 예방 대책을 잘해야지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대책들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아예 개선 방안 자체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는 겁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그렇게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율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충남 보령 국회의원은 장동혁 대표님 아니신가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랬을 리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윤진 차관님께서 더 부처에서, 보훈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성 공직자가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발탁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더 좀 많이 보훈 관련된 업무들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평해전 관련된 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도 현안질의 때도 한번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평가와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차관님, 독립기념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또 작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기념관장의 자격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좀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24일 날 실지 감사는 나왔고요.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또 정상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장 문제와 기념관 문제는 조금 나눠서 검토해 주시기를……

○박상혁 위원 그래서 예결소위 위원님들도 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기관 차량 유지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을 부대의견 등을 통해서 중지시키고 기관이 정상화될 때 다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요.

유철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퇴를 하시는 게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많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사퇴를 하시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도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기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예산들의 집행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평가드리고요. 아직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활동 중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렌식 관련된…… 여기 여러 가지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장비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있는데요 최신 장비가 있으면 좀 대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대검도 여력이 없고 이런 측면이 있고, 최신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혹시 잘못하다가는…… 요새 전자문서라든지 전자자료 같은 경우는 증거능력 문제가 다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초당적으로 또 주가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다 공분이 있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제대로 원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들 신경 쓰시고 또 저희들이 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게 서민들에 대한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에 어떻게 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안은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서면질의도 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되어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 그래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하십시오.

○**허영 위원** 강운진 차관님하고 권대영 부위원장님 발언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잘 수용해 주시고요. 하지만 위촉되지 마시고 국민께 보답하는 자세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강윤진 차관님, 보훈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대금과 광복회관 임대료를 재원으로 해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토지 매각대금이 3억 원 수준이고 대부분 93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전입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친일재산에 대한 매각,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8월에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의로 축적된 친일귀속재산을 환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허영 위원 지금 미환수된 친일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귀속재산은 필지가 1592고 잔여재산이 81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허영 위원 추정치에 비하면 한 3% 정도도 안 되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허영 위원 이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겨우 환수한 친일 귀속재산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시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고 그 자손은 그걸 다시 팔아 가지고 매각 차익을 또 얻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친일재산매각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꼭 만들어서 해 주시고 국회에 지금 국가귀속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허영 위원 국회도 조속하게 처리를 할 테니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 전담 위원회 빨리 보훈부에 설치할, 미리 미리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해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법무부에서 소관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와 의견이 같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에 마무리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전에 2005년인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들도 있고 또 학계에서 조사한 친일 추정 재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철저하게 분석해서 환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이게 국무조정실장님께 해야 될지……

일단 권대영 부위원장님께, 캄보디아 기반의 국제적 사기 금융그룹 프린스그룹 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허영 위원 미국과 영국은 초국가적 사기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한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허영 위원 그래서 미국은 아예 비트코인 21조 원 규모를 압류했고 영국은 2100억 원 대 부동산 즉각 동결 조치에 나섰지요. 우리나라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예치금 약 912억 정도만 동결 조치를 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리스트를 전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리스트 공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허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결 조치가 이렇게 미흡한 거지요? 이게 보니까 금융위나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까지 관계 부처 협의 테이블이나 금융제재의 이런 공동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빨리 해서 범죄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한 측면도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영 위원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결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아주 강력하게 제재 조치하고 동결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허영 위원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아마 국무조정실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하시고.

○이강일 위원 강운진 차관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운진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운진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연평해전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부분을 서로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대신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 기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운영에서 종교적 편향성 많이 보였고요 사적 유용한 것들이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물들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 관리 소홀 문제를 본 위원이 질타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심분 고려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거취 문제라든가 감사에 활용해 주실

것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권대영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경 심사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가 너무 높다, 15.9%. 금리를 좀 인하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12.9%짜리하고 9.9%짜리 상품을 신속히 도입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코스피5000 위원으로서 코스피 4000을 돌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관련돼서 이렇게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서금원 대책에 높은 연체율과 30%에 육박하는 대위변제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좀 부락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연체와 대위변제에 3600억이 넘는 재정을 소모하기보다는 금리 인하와 상환율 상관관계를 좀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 상관관계를 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적정금리가 얼마인지 이걸 도입을 좀 해 달라 당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적정금리 도입 방안 함께 진행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님에 대한 얘기, 국민권익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부위원장, 지금 현재의 위원장님…… 국가보훈부차관은 자기 말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2월·3월 간부회의 때 부적절한 정치편향적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있는데 본인은 기억이 없대요. 왜 국민권익위의 전 부위원장이나 현 위원장은 불리하면 ‘못 들었다. 한 적 없다’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기억이 없다’, 이게 무슨……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걸? 보세요. 기억을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정신건강 상태로 권익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요청이 있었는데 한번도 고발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이 있고 거짓이 있고……저도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물러나시는 것이 좀 더 명예로운 것이 아니냐.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국민들의 제대로 된 권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용단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박범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경인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국감에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말하지 못하셨던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님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잘된 일이고요. 반통일적이고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언행 일삼으면서 연구원 내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기관 정상화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외 업무협약과 내부 직원 노동조합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관장 업무추진비 작년에 보니까 삭감됐던데 이번에 올라오지도,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복원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통일연구원, 제가 관심이 생겨서 국감 이후에 무슨 연구하나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실제 연구 주제별로 연구가 이루어지는가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KINU 글로벌 통일외식조사는 대북 통일정책 연구의 핵심인데 그냥 매년 별도로, 기관 고유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관 고유사업으로 해서 5억 예산편성해서 국외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화해협력 기반의 평화공존 통일 대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현장 다 확인해 보니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 예산편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소위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반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 발언, 노조원 괴롭힘 등 노동연구원장의 반노동적 행위……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다 잃었지요, 이런 것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기관장 관련 예산은 썩다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대영 부위원장님, 포렌식 장비 이것 예산 보니까 한 5000 남짓이면 되더라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런 건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 관련자들 제보 없으면 사실 이것 쉽지 않은데, 자본시장을 훈육하게 하는 행위요. 그런데 25년 2억 원 예산인데 이미 98% 소진됐고 1억 2000 정도 추가로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 끝어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신장식 위원** 내년 예산도 2억밖에 없는데 1억 2000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다음에 포상금 최고액도 30억 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최고액은 30억 원인데 매년 2억 원밖에…… 그래서 대통령의 패가망신 발언 뒷받침하려면 여기 좀 대폭적으로 포상금 많이 주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신장식 위원** 강윤진 차관님, 고속철도 이용 지원하시잖아요, 우리 보훈대상자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신장식 위원** 2023년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약 8100명 신규 대상자 추가되면서 감면 이용 금액이 급증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은 21억 6300만 원 수준으로 동결돼 있습

니다. 코레일과 SRT에 감면액의 60% 이상을 자체 부담시키고 있어요, 코레일과 SRT에. 이것 그쪽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서비스 보상 제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익서비스 보상을 70% 수준으로 해 주고 있는데 보훈부는 그 절반 수준만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는 한 34%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 34%? 절반도 안 되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한 50%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장식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적어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2026년도의 교통시설 이용 지원 예산을 보니까 한 60억 가까이 해야 절반 맞출 수 있더라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고속철도 말고도 시내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소위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보훈대상자들에게 편의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유철환 위원장님, 제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증액 예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러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물러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9월 25일 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는데, 대전환입니다. 포괄주의로, 개별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공익신고자 대상 법안이 497개에서 1977개 전체 법률로 확장이 됐어요. 포괄주의 대비하려면 대략 따져봐도 연간 45억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억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거취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주의로 바뀌면 내년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전향적인 판단을 하세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신다면.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반갑습니다.

경인사 이한주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박범계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하고 계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박범계 위원 경인사 예산이 점점 줄고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는 것 같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 늘었는데……

○박범계 위원 한 20억 정도 늘었어요? 이사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경인사의 역할과 업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일 만큼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인사가 만들어진 과정 또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산하 정부출연연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26개……

○박범계 위원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산하 출연연, 특히 여기에 법제연구원도 와 있는데 법제연구원장이나 기조실장 등의 소위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행태와 관련해서 제가 국조실장께 엄청 말씀드렸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행이 오셨을 때 ‘산하기관,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느냐?’, ‘없다, 그런 기능이’.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꼭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감에서 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지금 신장식 위원도 말씀했지만—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박범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국유재산 매각 무슨 진상규명 위원장을—당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었어요—맡았는데, 국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인가요 아니면 총리비서실장님이신가요, 어느 분이 지금 담당하시나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제가……

○박범계 위원 조정실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박범계 위원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관여 안 해요?

○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 신현성 예,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잖아요.

○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 신현성 저희 소관 업무가……

○박범계 위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수사할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도 비서실장님 또 국무조정실장님 도와 가지고 이 국유재산 매각 사태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뒤에 알아 보니까,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하잖아요. 그걸 사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97%가 수의계약. 그동안에 한 3% 정도는 입찰로 하는데 입찰가가 적정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입찰가를 73% 확 줄였어요. 그러면 27%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입찰가로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집단들이냐? 알 수 없어요. 이름은 다 중복됩니다. 현직 도지사 이름하고도 중복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 이름도 중복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유지를 산다 이 말이에요. 사 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대출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그 국유재산을 대신 채당을 해 버리지요. 그걸로 팔아넘겨요. 그러면 세탁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세탁. 여기 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대통령께서 전면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잘하신 거지요. 정부가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각오를 밝힌 건데 실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지금 대통령 지시 이후에 저희가 후속을 챙기고 있고요. 일단은 각 부처에서 리스트 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 또 관련 부처들이 할 거고요. 총리도 마지막 재가를, 새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재가를 하는 과정까지도 만들어 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부분은 과거 부분대로 또 앞으로 새로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박범계 위원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사후에, 바로 현재 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필요하면 감사원이든지 그런 곳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당연하십니다.

○박범계 위원 당연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부당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의뢰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민정실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능력을 그렇게 해서 좀 발휘를 해 보세요.

○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 신현성 예.

○박범계 위원 크게 답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 신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부동산 세탁이라는 것 그 부분도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기재부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아니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총리실장님께 박범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많이 해당되는 데가 캠프가 있잖아요.

금융위 부위원장, 캠프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좋은 지적이신데, 공무원 조직의 습성을 보면 정말 팔아야 될 걸 안 파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지시가 한마디 떨어지면.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매각이 돼야 되는데 지시가 한번 있으면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갑니다. 그런 것은 경계를 해서 총리실에서 잘 조정하시도록……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외 사항을 뒤 가지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공무원들 대부분 습성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김승원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정확히 했는데 짧게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한홍 예,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조금 전에 김승원 위원께서 공정위 인력 증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본부 증원 예산은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과천 인력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 아, 죄송합니다. 경인사무소 관련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인사무소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정문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는 13일 목요일 17시로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 얘기도 할 필요 없이 국정감사 때 예를 들어서 명륜진사갈비 등 불출석한 증인 문체에 대해서 다음 전체회의 전에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빨리 사후 이행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 등.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간사님, 잘 준비하고 계시고요.

○강준현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추경호
한창민 허영

○출장 위원(2인)

유영하 이현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2차장 김용수

검찰개혁추진단

총괄기획국장 박상철

사회복지정책관 송민섭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민기

민정실장 신현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

사무총장 장영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윤지웅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

원장 권남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상규

통일연구원

부원장 현승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원장 김준경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영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박은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김영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허재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두봉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백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정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권혁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천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김홍균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박환용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정책기획관 박진수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복지증진국장직무대리 김법수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보훈의료심의관직무대리 최예은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

독립기념관

관장 김형석

88관광개발(주)

사장 서정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사무처장 유성욱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심판관리관 김근성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영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주영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재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지준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사무처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
조사조정국장 남석

임시회의록